

교체투입 골 넣은 손흥민 “벤치 앉아 팀 도울 방안생각”

후반 히샤를리송과 교체 투입돼 4분 만에 골
“벤치 앉는 것 좋아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

20일 웨스트햄전에 교체 투입된 후 골을 넣은 손흥민(31)이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팀을 도울 방안을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2-23 EPL 홈경기에서 후반 11분 에메르송 로얄의 선제 결승골과 후반 17분 손흥민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손흥민은 후반 23분 히샤를리송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에열을 마친 손흥민은 후반 27분 해리 케인의 침투 패스를 절묘하게 받은 뒤 구석을 찌르는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후 손흥민은 BBC 인터뷰에서 “벤치

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다”며 “나는 벤치에 앉아서 팀을 도울 방안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좀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승리를 지나치게 자축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토트넘 동료 벤 데이비스는 “이번 골은 우리가 기대해왔던 것이다. 매일 훈련장에서 봤던 장면”이라며 “이번 시즌 잘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손흥민이 오늘 골을 넣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토트넘 수석코치는 “손흥민은 현재 100%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며 “공간이 주어지면 손흥민은 놀라운 선수가 된다. 우리는 손흥민을 이런 방식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첼시 스트라이커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임크는 이날 스카이스포츠에 “손흥민을 화나게 하면 손흥민은 더 잘하고 골을 넣는다”며 “나라면 몇 경기 더 히샤를리송을 선발로 넣고 손흥민을 벤치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토트넘 스트라이커 로비 킨은 스카이스포츠에 “벤치에 앉을 때 어떤 선수들은 못마땅해 하지만 손흥민은 그렇지 않고 경기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전남, 전국동계체전 금 17개·은 8개·동 6개...조다운 4관왕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한 조다운(왼쪽), 강다현(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선수단이 금메달 17개·은메달 8개·동메달 6개를 수확하며 순항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국동계체전 지난 19일 경기에서 전남은 금 3개, 동 3개를 추가해 시범

종목 포함 총 금메달 1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회 3일째 경기에서 조다운(화순제일중)은 크로스컨트리 여자16세 이하부 클래식 5km에서 18분05초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여 프리 7.5km(26분50초3)와 복합(44분56초2), 단체전 15k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4관왕에 올랐다. 조다운은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지난 대회에 이어 연속 5관왕을 바라보고 있다. 강다현(여수삼일중)은 스키 알파인 여자16세 이하부 회전 결승에서 은메달(1분36초42)을 시작으로 대회전에서 동메달(1분39초61), 복합에서 은메달(73초50)을 수확했다. 이 밖에도 나경준(나주다시초등학교)이 클래식 3km와 복합, 8k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 소지희(나주다시초)가 클래식 3km, 6km 계주에서 2관왕, 장원지(화순초)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등부에서 전다경(화순제일중)이 은메달 2개, 안미랑(화순제일중)이 은메달 1개를 가져왔다. 시범종목으로 열린 산악 아이스클라이밍에서도 금빛 소식을 전해졌다. 이영건과 정은화(전남향군산악회)는 아이스클라이밍 남녀 일반부 리드 부문에 출전해 각각 1만2300점, 1만261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영건은 스피드 부문 결승에서 12초6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재환기자

프로야구 KIA,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생중계

한화·롯데·삼성과 연습경기 유튜브 채널로 중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KIA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리는 연습경기 3경기를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중계 예정 경기는 28일 한화 이글스전, 다음달 3일 롯데 자이언츠전, 5일 삼성 라이온즈전

이다. 경기 개시 시간은 모두 오후 1시다. 구단은 이번 중계를 위해 오키나와 현지에서 카메라 4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KIA는 “비시즌 동안 야구에 몰입해 있던 팬들의 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번 생중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생중계는 기상 상태 등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뉴스

한국배구계 상륙한 명장 아본단자, 3월 돼야 지휘 가능

홍국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서류 제출...아본단자 없이 최대 3~4경기 치러할 수도

프로배구 여자부 홍국생명을 이끌 마르첼로 아본단자 신임 감독이 다음달이 돼야 코트에 서 경기를 지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국생명은 20일 아본단자 감독 취임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 발급에는 1~2주가 걸린다. 이에 따라 아본단자 감독은 올 시즌 프로배구 마지막 라운드인 6라운드가 돼야 코트에 나올 전망이다. 홍국생명은 아본단자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김대경 대행 체제로 오는 23일 한국도로공사전 홈경기, 26일 GS칼텍스전 원정경기를 치러야 한다. 아본단자 감독이 한국에서 치를 첫 경기는 다음달 2일 페퍼커피은행전 원정 경기 또는 다음달 7일 도로공사전 원정경기가 될 전망이다. 아직 코트에 나설 수 없지만 아본단자 감독은 지난 19일 서울중흥체육관을 찾아 홍국생명 경기를 지켜봤다. 아본단자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홍국생명 코칭스태프와 인사를 나눴다. 김연경과 엘레나 사이에 서서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아본단자 감독이 취업 비자 발급 전에 입국하게 된 것은 튀르키예를 강타한 지진 때문이다. 지진으로 튀르키예 리그가 중단됐고 소속팀 튀르키예항공이 아본단자 감독과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강충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도드람 V리그 GS칼텍스와 홍국생명의 경기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홍국생명은 19일 아본단자 감독은 18일에 입국해 계약을 마무리했다. 비자 등 등록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진을 계기로 이미 영입 후보군에 포함돼 있었던 아본단자 감독과 홍국생명 구단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아본단자 감독의 시즌 중 부임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본단자 감독은 1996년부터 이탈리아 리그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이탈리아 대표팀 코치, 불가리아, 캐나다, 그리스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으며, 아제르바이잔 라비타 바쿠, 터키 페네르바체, 이탈리아 자네티 베르가모 등 세계적인 수준의 팀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배드민턴 대표팀, 아시아혼합단체전 결승서 중국에 무릎

한국, 조별예선 이어 결승전에서도 중국에 쓴잔



2023 아시아혼합단체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준우승. (사진=대한배드민턴협회 제공)

배드민턴 대표팀이 아시아혼합단체전 결승에 올랐지만 중국에 막혀 준우승에 머물렀다. 대표팀은 지난 19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3 아시아혼합단체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중국에 1-3으로 저준우승을 거뒀다. 간판 안세영이 빠지는 등 사실상 2군 전력을 출전시킨 한국은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조별예선에 이어 결승에서도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남자단식에서 이윤규가 레이판시에 0-2(16-21 15-21)로 졌다. 여자단식에 나선 김가은은 가오팡지에 0-2(15-21 15-21)로 패했다. 남자복식이 유일한 승리를 따냈다. 김원호-나성승 조가 허지팅-조우하오동 조를 2-1(19-21 21-16 21-17)로 이겼다. 여자복식 이소희-정나는 조는 리우옌슈-탄닝 조에 0-2(11-21 10-21)로 졌다. 뉴스

‘19안타 폭발’ WBC 대표팀, KIA 상대 연습경기도 승리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야구 대표팀이 두 번째 연습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키노 베테라스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평가전에서 안타 19개를

터뜨리며 12-6으로 이겼다. 지난 17일 NC와 첫 평가전에서 8-2로 웃었던 대표팀은 두 번째 평가전에서도 뜨거운 타격을 선보이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강철 감독은 이날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중견수)-양의지(두산 베어스·포수)-최정

(SSG 랜더스·3루수)-김현수(LG 트윈스·좌익수)-박병호(KT 위즈·지명타자)-강백호(KT·1루수)-박건우(NC 다이노스·우익수)-오지환(LG·유격수)-김해성(키움·2루수)으로 꾸린 선발 라인업을 내놨다. 9번 타자 김해성은 이날 3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필름 날았다. 강백호와 박건우도 나란히 2안타씩을 때려냈다. 뉴스

결혼 후 첫 출전’ 세계 1위 리디아 고, 사우디 대회 우승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결혼 후 처음 출전한 공식 대회에서 우승했다. 리디아 고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김일돌라 경제도시의 로열 그린스 골프클럽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피언(LET) 아랍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우승 상금 75만 달러(약 9억7500

만원)를 챙겼다. 2위 아디티 아쇼크(인도)와는 한 타 차 우승이다. 2021년 11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의 우승이다. 통산 7승째다. 또 지난해 12월30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인 정준 씨와 결혼한 리디아 고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